

# MI25

2013 **2.25~3.03**

## Feel the Ultimate Sound!

### Identity **will**



Enjoy your music everywhere  
with 'Speaker Case' Will. iPhone 5



**SUPERWOMAN  
SERV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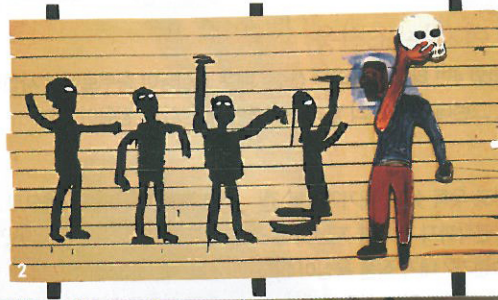


Genuine Recycle 2 Pieces Speaker Anti-shock BY-NC-ND





〈장-미셸 바스키아전〉  
일시 2월 14일~3월 31일 장소 국제갤러리 문의 02-3210-9889



## 2 바스키아 마주 보기

지난 2월 14일, 2006년 이후 두 번째 바스키아전이 시작된 날, 런던 필립스 경매에서 바스키아의 1982년 작 드로잉 '무제(Untitled)'가 1520만 달러(약 164억원)로 그날 경매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굳이 그에 대해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바스키아는 그런 아티스트다. 그라피티를 예술 영역으로 승화시켰다는 점과 짧고 굵게 살다 간 그의 드라마틱한 삶은 더할 나위 없이 '아티스트'답다. 이번 전시는 그런 그의 작품 활동을 압축해서 보여준다. 1981년부터 1986년까지 짧은 작품 활동 시기의 주요 작품 18점을 만나볼 수 있는 것. 1982년 목재 패널 콜라주 작품 '무제(핸드 아나토미(Hand Anatomy))'부터 1986년 작 '행렬(Procession)'에 이르기까지 망설임 없이 그려나간 그의 작품은 하나같이 강렬하다. 지극히 강한 컬러감과 알아볼 수 없는 언어, 기호들이 혼재된 작품을 보면서 해석하기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가 이민자의 지식 이기에 그리고 흑인이기에 느꼈을 차별과 비주류적인 삶, 기존 질서에 대해 저항했다는 배경지식을 지니고 작품의 의미를 추측해볼 뿐. 생전에도 작품에 대한 분석을 거부했던 바스키아처럼 이번 전시는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볼 수 없다. 널찍한 갤러리에서 작품과 나만 오롯이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한다. 나와 작품 사이 텅 빈 공간에 서서, 작품을 보며 상상한 그 '무엇'으로 채워가면 되는 거다. 어린아이의 낙서 같은 그의 그림 앞에서는 명확한 해석보다 작품을 고스란히 마주 보는 시간 자체가 더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다. 에디터 양영매



1 DESMOND(1984) Acrylic on canvas © 2013 The Estate of Jean-Michel Basquiat / ADAGP, Paris / ARS, New York  
2 Procession(1986) Acrylic and wood relief on wood © 2013 The Estate of Jean-Michel Basquiat / ADAGP, Paris / ARS, New York 3 Jean-Michel Basquiat © Julio Donoso/Sygma/TOPIC 국제갤러리 제공

## 3 앤드류 로이드 웨버야말로 어메이징

아마 뮤지컬 좀 본다는 사람이라면 '앤드류 로이드 웨버'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을 거다. 〈오페라의 유령〉 〈캣츠〉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등 명작으로 손꼽히는 뮤지컬의 음악을 작곡한 사람이니까. 그의 '절친'인 팀 라이스는 〈라이언 킹〉 〈미녀와 야수〉 〈아이다〉 등의 가사를 쓴 작가. 이 두 사람이 열아홉 살에 함께 만든 작품이 바로 〈요셉 어메이징〉이다. 바로 그 뮤지컬이 드디어 우리나라에 상륙했다. 프레스콜을 통해 본 〈요셉 어메이징〉의 첫 느낌은 색다르다는 것이었다. 무대 아래가 아닌 한참 위에 자리한 오케스트라의 모습이 가장 먼저 눈에 띄었다. 무대 중앙에 놓인 대형 LED 화면도 이색적인데 극중 공간이 바뀔 때마다 다른 화면을 내보내 생동감을 불어넣는 역할을 했다. 극중 배역들 외에 해설자가 따로 등장한다는 것도 참 독특한 설정. 베테랑 배우 최정원과 김선경, 리사가 맡았으니 주인공에 버금가는 역할이라는 건 눈치챌 수 있을 거다. 가장 흥미로웠던 신은 엘비스 프레슬리 처럼 분장하고 나온 파라오 왕이 무대를 압도하는 장면. 주인공은 요셉이지만 관객들의 시선을 더 끌어당기는 건 파라오였다. 전체적인 내용은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샘으로 인해 노예로 팔려가 온갖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 꿈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 내용으로는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볼거리가 가득한 뮤지컬이라는 건 장담할 수 있다. 2월 12일~4월 11일 사롯데씨어터. 에디터 배만석



오랫동안 기다려 온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팀 라이스의 뮤지컬의 명칭!

# 요셉 어메이징 테크니컬러 드림코트

ANDREW LLOYD WEBBER & TIM RICE'S MUSICAL

2013.2.12~2013.4.11 사롯데씨어터

www.IATD.co.kr